



## 입학사정관제

신희영, 양현일 공저



## Introduction for Contents

대부분의 학생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일선의 교사들마저 입학 사정관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체를 알지도 못하면서, 합격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걸까요? 뒷걸음질 치다가 꼬리 밟은 놈이 합격하는 것이 입학사정관제일까요?

왜 6번으로 한정된 수시의 기회를, 불확실한 준비로 인한 더 불확실한 운에 맡겨, 그저 날려버리고 있는 것입니까. 수 많은 학생들의 고민과 학부모님들의 의문 속에서, 정작 입시에 도전하는 사람은 왜 그 누구도 입학 사정관제에 합격하기 위한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에 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학생이 갖고 있는 관심사와 특기를 살려 좋은 대학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다” 라는 언론이 만들어낸 입학 사정관제의 이미지에 혹하지 마세요. 그 ‘하나의 특기’라는 헛된 허상을 믿고 봉사 활동에 몰입한다거나, 동아리 활동과 기타 수상실적에 목숨을 거는 등 **자의적으로 결론을 내린 ‘합격으로 가는 입학 사정관제 준비’**를 하다 보면 정작 입시의 본질적인 부분에 소홀하게 되어 많은 학생들이 실패를 겪게 됩니다.

그 누구도 학생부와 대학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능 성적, 평가에 플러스 점수를 더해 줄 비교과가 적절하게 조화되어 있는, 그런 전 방위에 걸친 준비 없이 부실한 성적으로 단순히 학생의 ‘가능성’만으로 합격할 수는 없습니다. 혹여 요행이 있더라도, 추가적인 서류 전형과 면접 과정에서 우연히 얻은 행운은 멈추고 말 것입니다.

소수의 학생들이 그림 같은 이야기로 입학 사정관제에 합격한 사례가 종종 들려올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SKY 대학’은 그렇게 합격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나는 집안 형편이 어렵지만 좋은 내신 성적을 거두었으니까 자기 소개서에서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공부했다는 점을 잘 살려서 자기 소개서를 작성하면 합격할 확률이 높아지겠지”

“나는 프로듀서가 되고 싶어서 방송부 활동과 다른 대외활동을 많이 했으니까 나의 다양한 미디어 관련 경험을 강조하면 분명히 좋은 점수를 받을 거야.”

“나는 유명한 전국 규모의 경시대회 수상자니까 당연히 나의 우수성은 입증된 것이겠지”

“내가 내신 성적은 좋지 않아도 토플 점수가 119점이나 되는데 설마 SKY대학을 못 가겠어”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합격에 대한 밝은 전망을 마음 속에 품고 있다면, 이 책을 읽고 다시금 가던 길을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학생들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는 입학 사정관제 전형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분명한 장점, 그것 하나만으로도 합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곤 합니다. 물론, 완전히 근거 없는 소리는 아닙니다. 언급된 사례의 학생들 역시 분명히 우수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씩은 갖추고 있기 때문이죠. 모두 주변에서 한번쯤은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으신가요? 그만큼 실제로도 저런 이야기를 자랑 삼아 하며 합격을 믿고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살펴봐야 할 것은, 입학 사정관제를 무엇으로 ‘뚫을’ 것인가?

**즉, 어떤 접근법이 합격에 다다른 진정한 길인가?**라는 생각으로 학생이 갖고 있는 여러 자질 속에서 구체적인 입학 사정관제 준비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돼!**”라는 말인데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만큼 힘 빠지고 나에게 관심 없는 담임 선생님이 입시 지도 시간에 의례적으로 하는, 그런 준비된 멘트 같은 소리가 어디 있을까요.



그렇지만 이 책은, 막연한 ‘잘 해라, 잘 준비해라’는 소리에 지친 학생들에게 “이렇게 준비하는 게 대학이 뽑고 싶은 학생이 되는 가장 손쉬운 길이다.” 라는 접근 방식을 직접적으로 제시할 것 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내신 중심 입학 사정관제와 특기자형 입학사정관제 모두의 합격을 결정하는 것은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 항목 내역의 총 합산 점수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이 책을 읽어 나가면서 다시금 채워 나가야 할 부분을 하나하나 되짚어 나가고, 그 구체적인 준비 방안까지 보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수능을 잘 봐서 점수 순서대로 대학을 가는 것 보다, 입학 사정관제를 준비해서 대학을 간다는 것은 분명 머리가 아픈 일입니다. 신경 써야 하는 범위가 넓고, 입학 사정관제에 ‘올인’ 했다가 수능도 말아먹고 이도 저도 못하는 바보가 될 위험도 머리 속에 뻘히 그려질 수 있구요.

그러나 이제 입학사정관제는 수시 선발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도 커졌고, 앞으로의 입시 트렌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생의 우수한 면모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인 입학 사정관제로 점점 더 나아갈 것이라 예측됩니다. 따라서 수시 준비를 하는 학생이라면 그 누구도 입학 사정관제를 무시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줄어든 선발 인원과 재수생, N수생들간의 경쟁이 치열한 정시 선발에 운명을 걸 것인가, 여러 번의 시도 기회가 있는 수시에 도전해 볼 것인가?**

선택과 집중은 응당 학생이 결정해야 할 부분이며 그 취향도 한껏 존중해주고 싶지만, 조금 먼저 겪어본 입장에서는 ‘정시 집중’이라는 도박은 솔직히 말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이 책의 추가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고3이 되고, 혹은 그 밑의 학년에서 입학사정관제를 비롯한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은 싸우기가 참 쉬운데요. 학생들은 엄마가 수시전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모르면서 보채고 귀찮게 해요. 나도 모르겠는데 자꾸 나를 들볶아서 짜증나요, 이런 소리를 종종 내뱉어 헌신적인 엄마를 어이없게 만듭니다. 학부모님들은 신문이나 책을 통해 접한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막연한 환상과, 다른 아줌마들은 뒤 준비 시킨다더라 하는 풍문에서 온 불안함과, 뭘 어떻게 아이를 끌고 나가야 할지 모르는 혼란 상태에 지쳐있기 마련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불안에서 비롯된 짜증이 아이와의 잦은 언쟁으로 나타나 서로 사이가 급격히 나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다 보면 자꾸 아이는 엄마랑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하고 싸우기가 일쑤인데 자식이 욕심이 많아서 앞서나가면 엄마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무시해서 문제, 엄마가 잘못된 정보를 믿고 있는 헛똑똑이라면 그것도 문제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고, 앞으로는 싸우지 마세요. 이 책에서 다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입학사정관제는 이런 거고, 이렇게 준비하는 게 정석이에요. 왜? 합격자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39명의 연고대 합격자가 어떤 스펙과 어떤 자기소개서를 냈는지** 정확하게 보여드리고, 정확한 준비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이러한 귀중한 자료를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소수의 입시 컨설팅 회사라면 절대 내놓지 않을 있는 그대로의 좋은 자료를 직접 보고, 느껴서 깨달으면 이 책을 읽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서류 점수’는 내신과 스펙으로 꾸미는 것이고, 자기소개서까지 잘 써서 서류 심사까지 학생이 운 좋게 통과한 후에, 면접까지 찍고 나서야 비로소 ‘합격’하게 되는 것이 바로 입학 사정관제예요. 이 간단한 본질을 대면하기 위해, 앞으로의 친절한 설명과 함께 책을 읽어 나가도록 해보실까요? 이 책에서 제시하는 합격을 위한 전 방위의 ‘Grade Maximization’의 여러 단계와 고려해야 할 대상을 모두 숙지하고 준비해나간다면, 이전까지의 막연한 대비와는 확연히 다른 마음가짐으로 그 준비에 임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결과 역시 분명하게 달라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http://orbi.kr>

---

6	<b>I. 왜 수시인가? 그리고, 왜 입학사정관제인가?</b>
11	<b>II. 수시서류 ‘잘’ 준비하기!</b> 1. ‘서류’가 포함하는 것들 & 공략 평가항목 2. 학생부 반영, 내신의 영향력 3. 합격으로 가는 점수는 여기서, “공략 평가 항목”
68	<b>III. 자기소개서 작성, 이대로만 따라와라</b> 자기소개서 작성의 4 Step 대학이 원하는 자기소개서는 4단계를 통해 만들어진다
99	<b>IV. 내신 중심 입학사정관제 합격자 열전</b> - 합격자 스펙 & 자소서 분석 1. 연세대학교 진리 자유 전형 (2012) 2. 고려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
182	<b>V. 특기자형 입학사정관제 합격자 열전</b> - 합격자 스펙 & 자소서 분석 1. 연세대학교 글로벌 리더 / 언더우드 전형 (2012) 2. 고려대학교 국제 전형

---

# I. 왜 수시인가? 그리고, 왜 입학사정관제인가?

## + SKY 입시에서 어느 때보다 높아진 수시의 중요성

수시의 중요성이 증대된 배경은 대학의 입학 정책이 정시 중심에서 수시 중심으로 변화하게 된 추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인 2011학년도 입시를 기점으로,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를 포함한 대부분 주요 대학의 수시 모집 선발인원은 정시모집의 선발인원을 넘어섰습니다. 예전에는 수시모집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특별한 특기를 가지거나 수시가 요구하는 자질에 집중한 면이 있었던 학생들이었으나, 이젠 누구나 준비해야 하는 대세가 된 것이죠.

특히 우리나라의 입시 경향을 주도하는 서울대의 경우 파격적으로 수시로 전체 정원의 80%를 선발하고, 정시로는 20% 밖에 선발하지 않습니다. 일부 모집단위의 경우 수시모집으로만 선발하며, 정시모집에서는 아예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는 모집단위도 존재하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영향을 받아 연세대와 고려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시모집으로 전체 정원의 70%를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즉, 수시 위주의 입시 제도로 개편되어가는 상황에서 오로지 정시모집만을 목표로 하여 공부하는 것은 그 부담과 리스크가 너무나 커져버린 것입니다.

실제로 정시모집으로 신입생을 주로 선발하던 예전 2007~2008학년도의 경우 SKY의 합격하한선이 상위 2~3% 수준으로 유지되었으나, 최근 2010학년도 이후의 경우 상위 1%로 합격선이 크게 치솟았습니다. 또한 인문계열을 기준으로 상위 3%면 기존에는 SKY하위 학과에 합격이 가능했지만, 최근에는 ‘중-경-외-시’에도 합격이 가능할지 장담할 수 없는 점수입니다. 이는 그 만큼 정시모집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줄어드는 반면 수험생의 수는 계속 증가하여 발생한 결과이며, 이로 인해 정시모집으로 대학을 가는 것은 많이 어려워졌고, 수험생에게 정시모집에만 올인하는 입시전략은 무척이나 위험 부담이 큰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SKY 문과 정시인원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서울대	851	758	657	540	525	502	498
고려대	1223	1112	1259	1045	1044	916	699
연세대	1338	1095	980	913	954	526	446



2007학년도를 기준으로 정시 모집인원이 줄어들기 시작하여, 2011학년도에는 정시 모집인원이 눈에 띄게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2011학년도는 연세대학교가 수시모집인원의 비율을 급격히 늘린 해이고, 2012학년도는 고려대 역시 수시모집인원 수를 급격히 늘린 해입니다. 한편, 2013학년도의 경우 서울대가 수시모집인원의 비율을 80%로 급격히 늘리기로 예고하였는데 요 이로 인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3개 대학의 수시모집인원 비율이 극적으로 상승했으며, 정시모집인원의 비율은 5년 전에 비해 대폭 축소되어 반 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수험생 수의 증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2007~2013 수능 응시인원의 변화

수능일	고3	N수	총계
2013수능	523475		
2012수능	526420	151888	693634
2011수능	541880	154661	712227
2010수능	503095	135121	638216
2009수능	432721	154679	587400
2008수능	446582	126688	584890
2007수능	425396	151697	588899

수능 응시인원은 2007~2009 수능까지는 큰 변화없이 58만명 가량이 응시하였으나, 2010학년도 수능부터는 5만명이 늘어난 63만명이 되었고, 2011학년도 수능은 여기서 다시 8만명이 늘어난 71만명이 되었습니다. 이는 91~96년 사이에 출생한 인구가 많기 때문이며 또한 인구의 자연증가분 이외에도 재수생들이 누적되는 효과로 응시인원의 가중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능 응시 인원의 증가현상은 IMF이후 출산율이 극적으로 떨어지는 98년생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3~4년 후이나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전에 해당되는 올해 고3부터 중3학생들까지는 늘어난 수시 선발 비율과, 급증한 수험생 수로 인해 정시모집에서의 경쟁은 매우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최상위권 대학의 입시를 성공적으로 치르고자 하는 수험생들은 반드시 수시모집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수시준비를 소홀히 하는 경우, 정시모집만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 연고대 수시, 입학사정관제에 주목해야 한다

지금까지 대학들은 학생부·수능시험·대학별고사 등 성적 위주로 학생을 선발해 왔습니다. 그러나 성적 위주의 줄 세우기식 대학 입학 전형은 초·중등학교에서는 지나친 점수 경쟁을 초래했고, 대학의 입장에서는 개별 학과와 모집단위의 특성에 맞는 잠재력과 소질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는 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도입한 방편으로서 대학의 학생선발 권한을 확대하고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입전형의 자율화·특성화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것이 입학사정관제의 도입 취지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학입시 정책과 경향을 주도하는 서울대학교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자면, 서울대학교는 이러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취지에 맞추어 입학사정관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전체 정원의 80%에 해당되는 수시모집 인원 전부를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신입생 선발 정책에 즉각 반영되어 이제는 하나의 대세가 되었습니다. 즉, 최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이라면 입학사정관제를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역시 수시모집에서 입학사정관제 혹은 입학사정관제에 준하는 특기자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몇 년에 걸쳐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그 중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모두 전체 수시 입학정원 중 절반가량은 논술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데, 그 중연세대 2300여명, 고려대 2700여명으로 두 학교의 총 수시모집 인원인 5000여명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인 2500명이 논술로 선발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2500명 중 절반인 1250여명이 학교생활우수자 등 내신 중심 입학사정관제로 선발되며, 나머지 1250여명은 기타 전형의 입학사정관제 혹은 어학이나 과학 중심의 특기자전형으로 선발됩니다.

다만, 이 때 어학이나 과학 중심의 전형이 '입학사정관제'의 틀 안에 분류되어 있지 않더라도 입학사정관제와 반영되는 서류는 동일하고 사정관이 서류심사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같은 부류로 분류하여 준비해야 한다는 점에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즉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수시모집의 절반은 논술로 선발하는 것이며, 나머지 절반은 입학사정관제의 형식으로 서류평가를 바탕으로 선발된다는 사실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Check Point

어학이나 과학 특기 중심의 선발 전형이 '입학사정관제'라는 전형 하에 묶여있지 않다고 해도, 반영되는 서류의 접수 반영 방식이 같고 마찬가지로 사정관이 서류 심사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자.

즉 비중이 매우 커진 수시전형의 절반가량이 입학사정관제 및 입학사정관제에 준하는 전형들에 해당된다는 것이고, 수험생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 대학에 가기 위한 방안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불확실한 수능에 집중하거나, 혹은 논술을 오랫동안 꾸준히 대비하거나, 입학사정관제를 준비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2322 vs 980, 2751 vs 1036.

이는 무의미한 숫자의 나열이 아닌, 연세대학교의 수시 모집 인원 vs 정시 모집 인원, 그리고 고려대학교의 수시 모집 인원 vs 정시 모집 인원의 대비입니다. 입학 사정관제를 비롯한 수시 전형의 중요성을 무시한 채 정시모집에만 도전하는 것이 무모한 일이라는 것을 수치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줄어든 선발 인원과 재수생, N수생들간의 경쟁이 치열한 정시 선발에 운명을 걸 것인가, 여러 번의 시도 기회가 있는 수시에 도전해 볼 것인가?



## 1. 연세대학교 진리 자유 전형 (2012)

### 진리자유 전형 / 자유전공학부 12학번 ○○○

〈연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12&○○○ 서류 제출 내역〉

출신 고등학교	중흥고등학교
합격한 과(모집단위) / 전형	자유전공학부 / 진리자유 (2단계 우선선발)
내신평점	국영수사 1.24등급
내신 관련 특이사항	전교 석차 3 / 530명
어학능력	X
AP, SAT, 기타자격시험	X
모의평가등급	(6월) 1 2 2 / 2 1 2 (9월) 1 2 1 / 1 2 1 (수능) 1 1 1 / 2 1 2
수상실적	교내 논술대회 3년 내내 입상 2학년 교육감상 3학년 교육감상
봉사활동	130시간 '대한민국국제청소년자원봉사단'에 선발되어 1학년 때 라오스로 해외봉사 경험
임원경력	1학년 반장 1학년 전교부회장 2~3학년 전교회장
교내활동, 교외활동	창조교실 언어 논술반 교내 토론동아리 레드토네이도 학생회활동





〈연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12 000 실제 자기소개서〉

1. 지원자가 **고등학교 재학 중에 했던 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교과 외 활동(봉사, 자치, 동아리, 연구, 취미, 기타 활동 등)**을 선택하여 3개 이내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번호	활동명	역할 및 활동내용	활동시기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	임원 활동	반장, 학생부회장, 학생회장 역할						
2	자기주도학습	야간자율학습, 창조교실 언어논술반						
3	토론동아리	자체적으로 사회적 이슈에 대해 토론 활동						

위에서 작성한 활동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활동 하나를 선택하여 본인의 역할과 활동 내용을 설명하고, 그 경험이 지원자 개인 또는 주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임원 활동 중 2학년 때 16대 학생회장으로 선출된 후 학생회장으로서 학생회 활동을 했던 것이 가장 뜻깊었습니다. 학생을 대표하는 리더로 1년간 일하면서 ‘리더는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계속 던져왔습니다. 그리하여 얻은 결론이 있습니다. 리더는 두 가지 덕목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리더’입니다. 이는 학생회장 선거 과정을 통해서 배운 덕목입니다. 출마 결정에는 큰 고민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임원 활동을 꾸준히 해왔고 1학년 2학기 때는 학생부회장으로서 일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선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도 한 몫 했습니다. 하지만 과정은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후보자 등록 마감 하루 전까지도 러닝메이트를 구하지 못해 찢찢했던 적도 있었고, 후보자 등록 후에는 이틀만에 선거용 포스터 제작까지 하느라 시간에 쫓긴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선생님과 친구들이 저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습니다. 특히 포스터 제작을 할 때 친구들은 컴퓨터로 포스터를 채색하고 꾸미는 작업을 도맡아 주었고, 선생님께선 학교 등사실을 빌려서 밤늦게까지 출력 작업을 도와주셨습니다. 선거 유세 때도 선거도우미로 활동해준 많은 친구들이 있었고, 특히 3학년 선배들은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힘을 보태 주었습니다.

선거 중에 제 머릿속은 당선에 대한 것으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떤 공약을 내놓아야 표를 많이 얻을까 생각하고, 밤늦게까지 후보 소견서와 연설문을 구상하느라 피곤에 지쳐 있었습니다. 유세 때는 짧은 쉬는 시간을 활용하여 유세를 다닐 수 있도록 동선을 짜는 데에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했고, 마음의 여유 또한 없었습니다. 당선이 되고 나서야, 돌아켜보니 모든 선거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저를 진심으로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로소 저를 도와준 이들에게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그럼에도 제게 ‘다행이다, 축하해!’라고 말해주는 선생님과 친구들의 모습에서 깊은 반성을 했습니다. 나중에 담임선생님께선 선거 때를 회상하시며 무심했던 제게 실망하고 서운했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때 성숙하게 행동하지 못했을까, 아직까지 후회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리더는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동료를 신뢰하는 리더’입니다. 이는 학생회장 임기 중에 배운 덕목입니다.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생활복을 처음으로 도입했던 일입니다. 저희 학교의 불편한 교복으로 인해 학생들의 불만이 많았고, 교내에서 사복을 입는 학생들이 점차 늘어나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전대 학생회장이 처음으로 생활복을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실현되지는 못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숙원인 만큼 좀 더 강하게 어필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 학부모님, 그리고 학생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 생활복의 필요성에 대해 토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을 진행하면서, 학생회장이라면 모든 과정을 이끌고 모든 결정을 제가 내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토의 결과나



선생님과 담화 내용을 학생회 임원들에게 잘 알리지 않았습니니다. 대의원회의를 열 때도 회의 직전까지 머릿속에만 담아 두었습니다. 하지만 생활복 도입은 순탄치 않았고, 혼자 고민하느라 심적으로 지쳐갔습니다. 그때 전대 학생회장 선배와 연락을 했습니다. 선배는 곧장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원들은 아무것도 안 해? 같이 일해야 덜 힘들지 바보야.’ 많이 찼습니다. 제가 임원들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회의 역량과 시너지를 끌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추진력이 약해졌던 것입니다.

이후에는 모든 것을 드러내 놓고 학생회 임원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먼저 학생회 카페를 개설하였습니다. 서로 간의 원활한 교류를 위해서였습니다. 또 생활복 도입 학생생명운동을 기획할 때는 각 부서 부장들에게 서명운동 홍보와 통계 작업을 부탁했고, 선생님과 회의가 있을 때는 부회장과 동행했습니다. 생활복 초안이 나왔을 때는 학생회 카페에 사진을 올려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학생회 임원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함께 동분서주한 덕분인지 일은 빠르게 추진되어 3학년 1학기 때부터 저희 학교에 생활복이 도입되었습니다. 생활복을 입고 다니는 학생들이 보일 때마다, 학생회 임원들을 신뢰하지 못했던 저를 회상하며 변화된 모습에 보람을 느낍니다. 동료들을 신뢰하는 리더의 모습을 배웠습니다.

## 2. 지원자가 연세대학교에 입학한 후 이루고 싶은 장래 목표와 이를 이루기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혹자는 의술을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합니다. 하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현대 사회에서 선한 경제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빈민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그라민은행을 설립했던 유누스의 이야기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절대 빈곤에 시달리던 약 500가구의 빈민들이 그라민은행에서 제공하는 소액무담보대출의 혜택을 받아 홀로서기에 성공했다는 기적같은 이야기입니다. 자본주의체제 아래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줄어들지 않는 빈부격차와 극심한 빈곤으로 인해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저의 꿈은 그러한 사회에서 선한 애널리스트로서 그라민은행 이야기에 등장하는 빈민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경제적인 자립을 돕고 삶의 희망을 심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선한 애널리스트는 첫째, 경제적 논리로만 사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를 바라보는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여러 학문 분야를 두루 경험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했고, 연세대학교 자유전공학부에 지원하였습니다. 입학하게 된다면 송도 국제캠퍼스에서의 첫 1년 동안 영어 강의 수강에 어려움이 없도록 영어회화공부를 병행하면서 인문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의 학문을 두루 섭렵하여 사회탐구의 시야를 넓히는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둘째, 재미지옥인 금융시장에서 여왕개미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경제의 시대에서 파생상품에 현혹되어 수십 년간 저축해온 돈을 투자했다가 금융위기로 인해 한순간에 날리고, 가정의 파괴로 삶의 빛을 잃은 수많은 개미투자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개미투자자들이 건전하게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여왕개미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투기를 조장하는 나쁜 경제인들의 논리를 부술 수 있는 견고한 논리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금융학과 더불어 얽혀있는 파생상품에 대한 심도있는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투자동아리에 가입해서 직접 모의투자 연습을 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파생상품의 역학’을 주제로 연구논문도 써보고 싶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대학생 논문대회나 모의 투자대회에도 참가해볼 생각입니다.

셋째, 투자의 확고한 철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학년 때 사회적기업에 대해 조사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직접 부천 지역의 ‘행복한 동행사업단’이라는 사회적기업을 방문하여 인터뷰도 했습니다. 편의점 사업과 나박김치 납품, 도시락 유통업을 영세하게 꾸려나가고 있었지만, 그곳 사업단장님은 사회적기업의 브랜드화를 꿈꾸고 계셨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생산하고 유통하는 물건은 명품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사람들이 그러한 물건들을 많이 소비함으로써 사회적기업들이 더 풍족하게 소외 계층을 도울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선한 애널리스트라면 이렇듯 선한 경제를 만들어가는 데에 비전을 둔 기업에 투자하는 철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과 사회의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책들을 탐독하려고 합니다. ‘7막 7장’의 홍정욱이라는 사람은 하버드대 기숙사에서 홀로 철학 저서와 시집을 읽으며 인생의 고민을 하고 성숙할 수 있었다고 회고합니다. 저도 혼자 도서관에 박혀 진지하게 저의 투자 철학을 세워나가는 시간들을 가지고 싶습니다.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에는 고등학교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많은 서적들이 있으리라 생각하니 도서관 입성이 기다려집니다.

1학년 때 매년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전국의 청소년들을 선발해서 동남아시아로 파견하는 ‘대한민국국제청소년자원봉사단’



에 선발되어 열흘간 라오스로 국제자원봉사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주로 한 활동은 학교 책걸상 보수와 페인트칠이었습니다. 라오스 학교의 책걸상들은 모서리가 상당히 날카로워서 까딱하면 다치기 십상이었고, 칠판도 말이 칠판이지 나무판을 뜯어다 붙여 놓은 형국이었습니다. 다치지 말라고 준비해온 새 책걸상에 열심히 사포질을 하고, 꼼꼼하게 페인트칠도 해서 예쁘게 선물했습니다. 현지 학생들은 새 책걸상을 만져보며 환하게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저는 라오스 사람들처럼 일상의 사소한 것마저 부족한, 경제적 약자들을 도우며 뜨거운 마음을 전하는 전도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의 미약한 손길에 행복해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한 경제인의 비전을 연세대학교에서 준비하고 싶습니다.

3. 지원자의 개인적 자질 중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자질(학업능력 제외)에 대해 설명하고, 고등학교 재학 중 그 자질을 계발하기 위해 노력한 경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저는 음악적 자질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오랜 취미생활 중 하나가 음악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음악적으로 타고났다기보다는 좋아하는 일이었기에 손에서 음악을 놓지 않았고, 자연히 그 자질이 계발되어 온 것이 아닌가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음악은 제게 큰 의미를 갖습니다. 저에게 음악은 어린 시절의 소꿉친구 같은 존재이며, 힘들고 긴 수험생활 속에 지쳐서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다른 세상으로 떠날 수 있게 해준 텅커벨과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피아노, 기타, 색소폰 등 다양한 악기들을 잘 다룰 줄 압니다. 그 중에서도 초등학교 시절부터 오랫동안 함께한 피아노에 애착이 많이 갑니다. 중학교 때는 친구들과 밴드를 꾸려서 넥스트(신해철)의 '그대에게'라는 곡으로 축제에 참가한 적이 있었는데, 건반 솔로를 화려하게 연주해서 1등상을 거머쥐었던 일도 기억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고등학교 연애에 대한 부러움이 있었던 탓에 여학생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노래를 피아노와 함께 연습하곤 했습니다. 피아노 연주만이 아니라 노래까지 곁들이려니 어지간한 연습량으로는 어렵도 없었습니다. 토요일마다 아무도 듣지 않을 때 정엽의 'Nothing Better'라는 노래, Ra.D의 'I'm in love'라는 곡들을 연습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써먹지 못하고 고등학생 내내 솔로로 지냈지만, 노래를 많이 부른 덕분에 학생회장 선거 유세 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교를 돌며 반마다 들어가서 저희 후보단을 소개하고 지지를 부탁하는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과 선배들이 짓궂게도 노래를 불러주지 않으면 찍지 않겠다는 농담 섞인 협박을 해왔습니다. 제가 나서서 청중의 호응에 보답하여 발라드를 선물해 드렸더니 반응이 폭발적이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2, 3학년 때는 성가곡집을 연주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교회에서 성가대로 활동하고 있는데, 오후 연습이 끝나면 따로 남아서 연습하는 성가대원의 반주를 제가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특히 3학년 9월에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곡을 연습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곡은 처음 도입부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16분 음표인데다가 여섯 단음표로 묶여 있어서 1박자 안에 음표를 6개나 쳐야 했습니다. 결국 손가락이 꼬이고, 난해함에 몸서리치며 반주자 선생님께 자문을 구했습니다. 문제는 오른손 손목이 너무 들려서 불필요한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빠른 스케일에 독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손목을 많이 쓰는 농구를 즐겼던 탓에 무의식적으로 힘이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손목의 힘을 빼고 늘어뜨려서 손가락만을 독립적으로 움직이려는 연습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약지는 수시로 스트레칭과 타건을 병행하며 힘을 키웠습니다. 마침내 '씨익' 미소를 띠며 친구들 앞에서 도입부를 연주할 정도가 되자, 함께 연습하던 친구들이 언제 이렇게 늘었냐며 칭찬해 주었습니다. 이렇듯 아무리 어려워 보이는 곡이라도 끈기를 가지고 연습했고, 피아노는 항상 그 보답으로 제 손끝에서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올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항상 노력의 결실은 그 어떤 화려한 곡보다 달콤했습니다.

성가대 단원이었던 만큼 성악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 호흡법, 발성법을 부단하게 연습했지만 트인 소리를 내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좋은 지휘자 선생님을 만나 '마스캐라'라고 하는 광대뼈 뒤쪽의 넓은 공간을 사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품하듯 입을 벌려서 혀로 목구멍을 막지 않고 비강의 뒤편으로 소리를 보내 공명시키는 개념이었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으면 화장실에 틀어박혀 거울로 노래하는 자세를 점검하고 공명하는 저의 소리를 피드백 했습니다. 마스캐라를 사용하니 목에 힘이 쉴 수 있게 되고, 호흡이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다만 제가 좀 마른 편이라 뱃심이 부족해서 '깊은' 소리를 뽑아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배에 힘을 주고 1분간 버티는 운동을 했습니다. 특히 3학년 9월에 솔로 파트의 긴 호흡을 연습하면서부터는 탄력이 붙었습니다. 호흡이 실린 힘 있는 소리에 더 가까워질 수



있었고, 덤으로 생긴 탄탄한 치골 근육을 거울에 비춰보며 남몰래 웃음을 짓기도 했습니다. 솔로 일주일 전 지휘자 선생님께서 제 소리를 들으시더니 1년 전에 비해 이제는 틀이 잡히고 몰라보게 좋아졌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화장실이라는 장소가 좀 그렇긴 하지만, 좋은 소리를 탐구하려는 노력은 실력이 한 단계 진일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원천이었습니다.

4. 다음 두 질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안에 √표를 한 후 작성하여 주십시오.

✓	지원자의 개인적 환경(가정, 학교, 지역, 국가 등)에 대해 설명하고, 그 환경적 특성이 지원자 자신의 삶에 미친 영향을 경험적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지원자의 삶에서 경험했던 가장 큰 위기와 좌절 상황이 무엇이었는지 설명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한 자신의 가치에 대해 경험적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저희 집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자유로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교육적인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마음에도 없는 학원에 떠밀려 다닐 때 저희 부모님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시려고 노력하셨습니다. 덕분에 초등학생 때부터 학원과는 거리가 있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남는 시간에 공부 외에 음악 활동과 독서 같은 취미생활은 물론 검도와 농구로 심신을 단련하면서 남들에게 지옥일 수 있었던 방과 후의 시간을 알차게 활용했습니다. 또한 아버지께서는 글을 통해서 제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종종 신문 스크랩이나 책을 권해주곤 하셨는데, 다양한 직업과 환경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대한 자기계발서나 수기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소설을 권해주신 적이 있어 기억에 남습니다. '경청'이라는 제목의 그 책은 독선적인 성격의 주인공 이토벤이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후 변화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토벤은 세상을 떠나기 전 아들에게 줄 마지막 선물인 바이올린을 직접 제작하게 됩니다. 암으로 귀가 잘 들리지 않지만 오히려 이전의 독선적인 태도를 버리고 바이올린 공방 팀원들의 말을 경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로 인해 팀원들의 신뢰를 얻고 마침내 아름다운 바이올린을 완성하여 아들에게 선물하고 평안히 눈을 감습니다. 이 책을 통해 제게 예전의 이토벤과 같은 면이 있지는 않은가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바이올린의 구성요소 중에 공명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이올린의 조화로운 소리를 위해서는 속이 텅 빈 공명통이 필요합니다. 타인과의 대화도 그렇습니다. 개인의 선입견에만 가득 차서 다른 이의 말을 들을 만한 마음의 공명통이 없는 사람은 결코 신뢰와 조화의 관계를 이어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사례밖에 들지 못했지만, 지금도 종종 삶의 이정표가 될 만한 글들이 있으면 제가 자율학습을 마치고 집에 오는 동안 책상에 놓아 주십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스스로 깨닫고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시는 멘토이셨습니다.

자유롭지만 무언 속이 질서 있는 저희 집 분위기 덕분에, 성장하면서 부모님과 친구처럼 늘 부모님과 대화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나는 가수다'라는 TV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일요일 오후면 온가족이 모여앉아 시청하는데, 무대를 평가하고 서로 좋아하는 가수들의 순위를 매기면서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최근에는 김경호라는 가수가 대기실에서 '관객들이 좋아해서 나도 정말 기뻐!'라며 보여준 귀여운 모습 때문에 가족들 모두 박장대소를 했던 유쾌한 일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을 볼 때면 사회 이슈에 대해서 서로 토론도 합니다. 이러한 가족 간의 일상적인 대화들은 서로의 꿈을 공유하고 어려움이 닥칠 때 위로와 격려를 하며 한데 묶인 사랑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고, 지금의 낙천적인 제 성격을 형성해준 힘이었습니다. 지금도 부모님은 제가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지쳐서 집에 돌아오면 과일도 깎아 주시고 농담도 건네시며 다시금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도록 배려를 아끼지 않으십니다.

저희 가족을 소개하면 부모님과 누나, 저, 여동생 이렇게 5명입니다. 저희 가족은 모두 꿈을 쫓습니다. 부모님은 10년 후 재단을 설립해서 사회 기여에 여생을 보내시는 것, 누나는 세계적인 호텔 소스요리 전문가, 저는 선한 애널리스트로 세계 경제계에서 일하는 것이고, 동생은 국제기구에서 세계를 향해 봉사하는 것이 꿈입니다. 꿈을 위해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는 저희 가족은 제게 든든한 지원군이자 편안한 안식처입니다. 좋은 가족이 있는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가족들은 제게 긍정적인 마음과 생각, 그리고 내가 가진 재능을 나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도울 수 있는 일에 사용해야 한다는 가치관을 심어 주었습니다. 비록 험난한 대학생활과 사회생활이 기다리고 있지만 '도전이란 실패의 과정을 통해 성공으로 가는 문'이라는 말처럼 사전오기의 자세로 사회와 이웃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서류 제출 내역 & 자기소개서 뜯어보기

<p><b>Strength</b></p> <p>» 다수의 합격자 자기소개서 중에서도 눈에 띄는 좋은 자기소개서를 작성</p> <p>» 강조점과 이야기가 살아있는 자기소개서를 통해 자신이 얼마나 따뜻한 인성을 갖고 있는 인재인지 구체적인 사례와 이를 나타내는 글을 통해 효과적으로 전달</p>	<p><b>Weakness</b></p> <p>» 교과 성적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2012학년도 연세대학교 진리자유 전형에 응시한 지원자들 중에서는 뛰어난 내신 성적은 아니었음.</p>
<p><b>Opportunity</b></p> <p>» 서류를 종합적, 과정 중심적, 교내 활동 중심으로 평가하겠다는 연세대학교의 자기소개서 채점 방식에 알맞은 사례인 토론 동아리 활동을 주요 활동 목록에 기록하였으면서도 자기소개서를 통해 나타내지 않음. 이를 3번 문항에서 인재상에서 요구하는 가치에 연결 지어 과정 중심적 이야기로 구성했다면 보다 좋은 점수를 얻었을 것.</p>	<p><b>Threat</b></p> <p>» 연세대학교 수시 설명회에서 언급한 내용에 따르면, 진로 선택의 동기가 사회적 이슈나 시류에 의해 지나친 영향을 받는다면 활동의 진정성에 의심이 갈 수 있다는 언급이 있었음. 그런데 가장 중요한 2번 문항의 진로 계획에 관련해 그라민은행이라는 최근의 이슈를 큰 비중으로 언급</p>

